전법 일기

相이 높으면 사람들은 절 안으로 오지 않는다

처음 포교당을 하게 되었다고 은사스님께 말씀드렸을 때 걱정이 많으셨다. 비구니 선원이었던 동화사 양진암으로 출가했던터라 포교당을 한다 했을 때 승려가 대중이 아닌 '독살이'의 포교당이 마땅치 않으셨다. 그도 그럴것이 상노스님 때부터 노스님, 은사스님 모두 선원에서 스님들 외호하시며 참선 공부만 하셨다. 주변에서 절을 지어주겠다고 신도님들이 말씀하셔도 절이 많으면 한 가지도 못한다며 오롯이 양진암을 지키셨다. 당신 상좌들도 그렇게 오롯이 공부하길 바라셨던 거였다.

그 속에서 필자도 그렇게 살려 했었다. 불교를 영어로 공부하기 전까진 말이다.

우연히 신문에서 비구니스님들 대상으로 국제불교영어학교 학인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용인 화운사에서 1년간 기본 회화를 비롯해 불교를 영어로 공부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불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목표였던 것 같다. 각국의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내 타 종단의 불교 교단과 타종교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해 영어로 발표하기, 더불어 한국불교의 문화, 수행법 등등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과 시험이 진행되었다. 이 수업은 후에 동국대 대학원에서 국제불교영어학과 석사과정으로 연결되어 필자의 지금 포교활동에 근간이 되었다.

기본은 간단하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첫 문제가 '나는 외국인이라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데, 불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였다. 불교에 대한 정의, 가치관 확립부터 시작했다. 얼마나 많은 시간 고민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만들어 낸 답도 정답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고민이 깊을수록 목소리에 힘이 생겼다.

수업 과정 중 SNS를 활용하는 수업도 있었다.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유행하던 터라 필자도 사찰이나 사지(寺地)에 있는 국보나 보물을 소개하는 'Treasure Hunt in Gyeongju(보물찾기)'라는 계정을 만들었다.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가입해 소통했다.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SNS를 활용해 계속 소통의 장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

불교를 영어로 배우면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상(相)이 자연스레 옅어진 것이다. 외국의 수행센터를 견학하며 느낀 점이기도 한데, 권위적이고 경직된 수행풍토에서 벗어나야 공부가 더 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야 사람이 모인다. 특히 젊은 MZ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다. 푸른 눈의 수행자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법을 펼 때 남녀, 종교와 같은 차별이 거추장스러웠을 것이다.

포교당도 그렇다. 상(相)이 높으면 사람들이 절 문(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수행과 소통은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는 마음이 기본이다. 최근엔 요가모임 단체와 108배를 하며 108번뇌의 의미에 대해 차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다음에 같이 봉정암 순례를 가기로 했다.



얼마나 환희로운 관계맺음인가!

시현 스님
안양 행복선원 주지



송마나의 **시절인연**

묵은 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을사년(乙巳年) 새해, 〈맹자(孟子)〉를 읽는다. '이루상(離婁上)'편에 나오는 '칠년지병 구삼년지애(七年之病 求三年之艾)'란 문구에 눈길이 머물렀다.

옛날에 한 아버지가 오랜 병을 앓고 있었다. 효심이 돈독한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병간호하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때 지나가던 스님이 "3년 묵은 쑥을 다려 드리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아들은 3년 묵은 쑥을 찾아 나섰다. 어디에서나 자라는 것이 쑥이요. 며칠만 지나면 곧 마르는 풀이 쑥이다.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쑥이기에 사람들은 구태여 3년씩이나 말려둘 필요가 없었다.

아들은 온 천하를 뒤졌으나 3년 묵은 쑥을 찾을 수 없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7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들이 스님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쑥을 뜯어 말렸다면 아버지의 병을 고쳤을 것이다.

지난해는 겨울로 들어서자 흰 눈이 내렸다. 100여 년 만에 쏟아진 폭설은 세상을 뒤덮었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물기를 머금은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부러져 땅 위로 널브러졌다. 소나무들의 어깻죽지가 쩍쩍 벌어져 떨어져 나간 붉은 속살에서 고통스러운 솔 향이 진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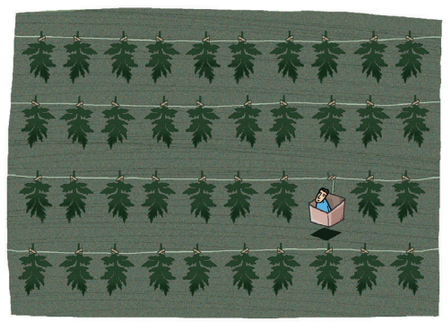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연은 세상의 표상이라 했던가. 갑진년(甲辰年) 겨울은 천간(甲)과 지지(辰)가 제 강건함만 믿고 우쭐댔던 것일까. 폭설이 그치자 우리 사회는 권력 집단들이 각각 제 목소리만 높여 민초들은 어둠의 혼란으로 울분의 붉은 피를 흘렸다. 백성을 이끌어가는 수뇌부들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느라 화합이란 단어는 사라져 버렸다. 평소에 웃음을 짓고 악수를 하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대를 온 마음으로 껴안을 수 있겠는가.

묵은 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약쑥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3년 묵은 쑥이 필요할 때는 즉시 베어 매달아야 한다. 어찌 그것을 밖에서 오랜 세월 찾아 헤매는가. 내 집안에서, 내 마음에서 바로 쑥을 잘라 말려야 한다. 자기가 베어 말린 쑥을 달이는 것은 자신의 성찰과 미루지 않은 실행이다. 그 탕약이 아버지를 살리고 이웃을 구한다.

슬픔이 가득할 때는 기쁨의 씨를 뿌리고, 불화가 넘쳐흐를 때는 화합의 씨를 뿌리고, 억울한 일이 많을 때는 감사의 씨를 뿌려야 한다. 산에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어 푸른 산이 되듯, 내 마음의 밭에도 기쁨과 감사와 예불(禮佛)의 씨를 뿌리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부처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담장 밑에 심은 작은 나무가 자라서 길 가는 사람에게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마당에 심은 작은 꽃 한 포기가 자라 탐스러운 열매를 맺듯, 내 안에서 서서히 피어오른 불성은 세상을 환하게 밝혀 준다. 평소 미래를 향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필요할 때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을사년(乙巳年)에는 소박한 민초들이 따뜻한 기운으로 아름다운 꽃 피우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그 온기를 밖에서 찾아헤맬 것이 아니라 마음 속 자등명(自燈明)에 불부터 밝혀야 하지 않을까.

〈작가〉

기자칼럼

"그것만큼은 말하지 말았어야죠!"

2022년 드라마 〈더 글로리〉에는 주인공 '문동은'의 명대사가 있다. 학교 폭력 피해자인 문동은은 가해자인 '박연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딸이 있는 학교 교사로 부임한다. 이런 사실을 눈치챈 박연진은 그의 친모인 '정미희'를 사주해 문동은이 학교에서 쫓겨나게 한다. 사실을 안 문동은은 분노에 차 절규한다. "그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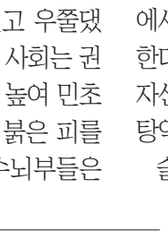
오랜만에 도반들과 함께 온라인 법회를 가졌다. 도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복장' 터지는 말을 듣고 말았다. 한 도반은 "여성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는 말을 한 불자에게 들었다고 고백했다. 지도하는 법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충격"이라며 "씻기 힘든 상처를 입은 데 안타깝다. 송구하다"고 대신 사과했다.

여성이 성불할 수 없다는 '여성불성불설'은 여전히 논쟁이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섣불리 펼친다면 수행·전법 현장에서 정진하는 불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들은 쉽게 반박할 수 있다.

먼저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문장은 불교 안에서 성립될 수 없다. "일체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씨앗인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모두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가르침 덕분에 차별받던 많은 사람이 자유와 해탈을 맛보았다. 또한 불교는 모든 실체를 부정하는 '무아(無我)' 사상이 핵심이다. 그런 불교가 '성(姓)'이라는 실체를 세워 성불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다. 부처님 재세시 깨달음을 얻은 비구니의 서사를 모은 〈테리가타〉, 여성의 몸으로 깨달은 승만부인의 이야기가 담긴 〈승만경〉 등 붓다가 된 여성 수행자들의 이야기는 차고 넘친다.

'어머니'라면 자식을 보호해야 마땅하다. 재가불자도 똑같다. 재가불자는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걷는 친구다. 친구가 근거 없는 말로 같은 불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감히 이같이 말하고 싶다. "그것만큼은 말하지 말았어야죠!"



김민재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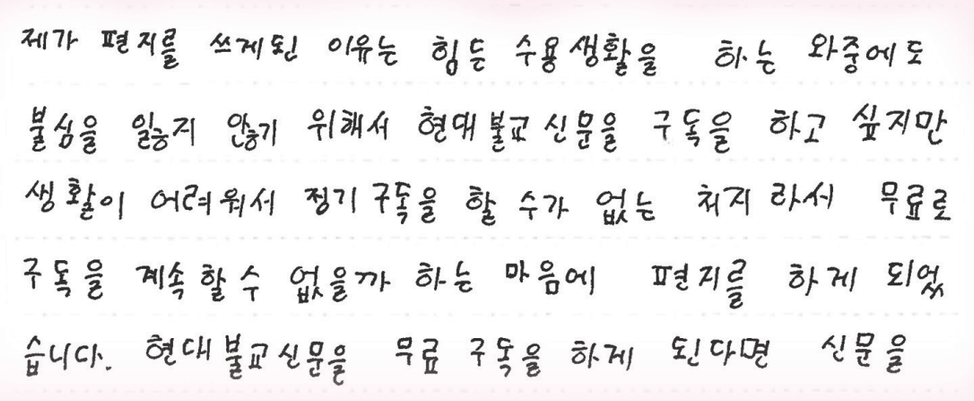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